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가속화 가능성

※ 최근 언론에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범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능성을 보도(조선일보, "세계경제 인플레이션 조짐", 10.20)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가속화 가능성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한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요약·보고 드립니다.

1. 주요국의 물가동향

□ IT혁명 등 생산성 향상, 국제원자재가격 안정, 중국산 저가수출품 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**저물가 체제**가 정착

□ 그러나 금년 들어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최근 **국제유가 급등***함에 따라 **주요 선진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속화**

*	2004	2005.1/4	2/4	7월	8월	9월
WTI($/배럴)	43.4	51.8	52.6	60.7	68.6	66.2

o **미국**의 경우 지난 4년간 2%대에서 안정되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들어 3%를 상회하다가 9월에는 4.7% 올라 1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

o **EU**의 경우 유로지역의 9월중 소비자물가가 2.6% 상승하여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
o **영국**도 금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9월중 소비자물가가 2.5% 상승하여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

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01	2002	2003	2004	2005				
					1/4	2/4	7월	8월	9월
미 국	2.8	1.6	2.3	2.7	3.0	2.9	3.2	3.6	4.7
유 로	2.3	2.3	2.1	2.1	2.0	2.0	2.2	2.2	2.6
영 국	1.2	1.3	1.4	1.3	1.7	1.9	2.3	2.4	2.5
한 국	4.1	2.8	3.5	3.6	3.1	3.0	2.5	2.0	2.7

2. 인플레이션 가속화 가능성

□ 주요 선진국의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9월중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**범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**가 대두

o 원유가격 상승은 휘발유 등 석유관련제품 뿐만 아니라 **여타 상품·서비스가격에 파급**되고 이는 다시 **임금인상**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**인플레이션 압력**으로 작용

o 더욱이 2000년대 들어 각국이 경기진작을 위해 **확장적 통화정책**을 운용한 결과 **저금리의 과잉유동성, 부동산 버블,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**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협이 가중

□ 그러나 실제로 범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저물가시대에서 **高인플레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**

o 최근 에너지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진데다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낮아짐으로써 **원유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**

o **세계화(globalization)의 진전**으로 기업들이 유가상승과 같은 **공급충격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곤란**해짐으로써 유가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,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

* 미국의 경우 9월중 소비자물가가 4.7%나 상승한 반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인 근원인플레이션(core inflation)은 2.0%에 머물러 고유가의 영향이 여타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o 최근의 유가 급등은 태풍 카트리나에 따른 멕시코만 연안의 원유생산 차질에 크게 기인하는 만큼 **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**이 높음

* 8월말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9월 들어 국제에너지기구(IEA) 회원국의 전략비축유 방출, OPEC의 증산합의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, 최근에는 향후 유가하락 예상을 반영하여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하회

	현물	3개월물	6개월물	9개월물	12개월물
WTI ($/배럴, 10.20일)	61.03	60.07	60.15	60.12	59.89

3. 향후 전망

□ 유가급등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해 3.9% 상승하였던 중국의 물가가 금년 들어 1%대에서 안정되고 있어 **범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**한 것으로 판단

o 세계적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Stephen Roach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잘못된 경보(false alarm)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*

* Stephen Roach(2005.10.17), "The New Inflation", Morgan Stanley

□ 이처럼 범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재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**국지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상존**

o 특히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방치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거나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세계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

□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**주요국 중앙은행**은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**정책금리 인상**을 고려

o **미 연준**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.75%p 인상하였으며 금년중 추가인상을 고려

o Trichet **유럽중앙은행**(ECB) 총재는 10.19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

o **일본은행**도 디플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